

예언 혹은 풍자 : 『천국과 지옥의 결혼』

허 윤 덕

I

『천국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은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복잡한 의미와 형식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이러한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블룸(H. Bloom)은 프라이(N. Frye)의 장르에 대한 정의를 빌려다가 이 작품이 풍자와 이성이 결합된 “축소 분석(a miniature anatomy)”이라고 부르고 있고, 프라이는 블레이크가 신랄한 조롱과 소란스러운 농담을 계시록적 비전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진정한 풍자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운문의 형식을 띤 「주제시」(“The Argument”)와 『자유의 노래』(*A Song of Liberty*) 사이에 위치한 다섯 개의 장면들은 중간중간 선언적인 부분과 극적인 장면들이 섞여 있어서 화자의 어조와 역할이 매우 다양한데다가, 시, 산문, 예언, 속담, 풍자, 알레고리 등의 장르가 혼합되어 있고 진지함과 농담이 결합되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읽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블레이크는 자기주장과 내러티브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고 있어 종종 원리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고도로 신화적인 진술을 포함하기도 하고, 때때로 극적 에피소드가 철학 선언 혹은 주장으로 귀결되곤 한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블레이크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이 지닌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블레이크의 근본원리를 제공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작품은 블레이크의 시적 비전이 서정시 군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초기 작품에서 비전이 서술적이고도 체계적 형식을 지니게 되는 예언시로의 전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블레이크의 예언 방법과 원리를 기술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위대한 풍자의 전통”에 속해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Frye, 200) “통렬한 조롱”과 “소란스러운 웃음”등을 무기로 이 작품은 스웨덴보그(I. Swedenborg)와 그가 옹호하는 개념들, 특히 삶에 대한 인습적 접근을 공격한다.(200) 그러나 오류에 대한 비난은 이 작품의 일부일 뿐이다. 이 작품이 풍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평가들은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로즈(Edward J. Rose)는 이작품을 “드라이든(J. Dryden), 포우프(A. Pope), 또는 스위프트(J. Swift)의 풍자와는 분

*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명히 다른 풍자인 광신자의 풍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블레이크는 풍자를 이성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채운다.(Rose, 142) 블룸(H. Bloom)은 이 작품이 메니푸스풍(Menipean)의 풍자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지적 풍자이면서 동시에 목전에 닥친 계시에 대한 예언(both an intellectual satire and a prophecy of imminent apocalypse)”이라고 설명한다. (Erdman, 896) 또한 텐바움(Leslie Tannenbaum)은 블레이크가 루시안적(Lucianic) 전통과 기독교 전통의 풍자를 융합하여 “예언적 풍자(prophetic satire)”를 창조해 냈다고 주장한다.(Tannebaum, 74~79) 의 심할 바 없이 전통적인 풍자가들의 작품처럼 귀에 거슬리지만, 전반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의례적인 풍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풍자적 요소들은 예언적 목적과 메시지에 완전히 포괄되어 있으며, 풍자의 특징은 지적 오류에 대한 비난보다 더 원대한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풍자와 공통적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의례적인 풍자처럼 보이지만, 블레이크의 풍자는 인간의 진정한 상태에 대한 예언자적 시인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블레이크는 정직한 분노의 목소리는 도덕적·이성적·규범적인 방식과 사람들의 우행과 악 사이에 생기는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고 무한한 실재와 그 실재에 대한 도덕적·이성적·규범적 접근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록 블레이크의 풍자가 허위를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스위프트식 풍자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규범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이며, 전통적 풍자의 규범은 곧 블레이크의 풍자의 목표가 되고 있다.

풍자는 기존 체제와 사상을 공격하고 그 허위를 벗겨 내려는 시도이긴 하지만, 어떤 새로운 진리를 계시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와는 정반대로 풍자가들은 독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진정한 규범이라고 이야기한다. 풍자가들의 공격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용인된 규범과 이 규범을 똑같이 옹호하는 풍자가와 독자의 암묵적 동일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평상적인 규범적 사유 방식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규범을 밝혀낸다.

또한 블레이크는 예언의 적절한 수단을 찾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가진 풍자의 또 다른 요소인 장르와 기법의 혼성을 가지고 실험한다. 그 다양성은 역시 중요한 문제들 가령 대립 원리의 필요성, 시적 정기 그리고 계시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메니푸스풍의 풍자가 이러한 혼성과 느슨하게 연결된 내러티브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해부 또는 분석”을 제시하려는 반면, 블레이크는 그 특징들을 이용하여 독자들의 감각 인식을 확대하여 이성과 상식의 구속으로부터 그들의 정신을 구원하려 한다.((Frye, 309~12) 예를 들어 블레이크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시적 정기 또는 변용적 인식을 제시한다 「주제시」에서 의로운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를 낙원으로 변화시킨 예로서, 11번째 판에서 옛 시인들이 신들이나 천재들로서 세계에 활력과 생기를 부여한 예로서, 첫 번째 「기억할만한 환상」(“Memorable Fancy”)에서 그들의 예언의 원천에 대한 이사야(Isaiah)와 에스겔(Ezekiel)의 설명으로서, 14번째 판과 세번째 「기억할만한 환상」에서는 변용적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비전으로서, 등등 다양한 시각으로 이 개념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의도하는 것

은 시적 정기의 개념을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독자의 정신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독자의 정신을 분석적 사유에서 심미적 사유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II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예언자 린트라(Rintrah)의 분노의 외침으로 시작된다. 린트라를 예언자의 모습으로 보던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영국의 반혁명 세력으로 간주하던 상관없이, (Bloom, 75) 「주제시」는 밝게 열리지 못한 하늘과 굵주린 구름을 통해 “영원한 지옥이 되 살아날(the eternal Hell revives)”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작품의 전체적 어조를 결정한다.

억눌린 대기 속에서 린트라가 울부짖으며, 불을 흔들고,
 굵주린 구름이 심연 위를 떠돈다.
 한때 유순했던 의인은 험난한 길에서
 죽음의 계곡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장미가 있는 곳에서는 가시가 자라고
 불모의 황야에서는
 꿀벌들이 노래한다.

험난한 길에 나무들이 자라고
 모든 벼랑과 무덤 위에
 강물과 샘물이 흘렀으며,
 메마른 뼈다귀들 위에는
 붉은 진흙이 솟아올랐다.
 그러자 악마가 그 편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길로 접어들어
 의인을 불모의 땅으로 내쫓았다.

그리하여 지금, 교활한 뱀이
 운유한 겹손의 표정으로 걸어가는데,
 의인은 사자들이 오가는 거친 들판에서
 노여워하고 있다.

억눌린 대기 속에서 린트라가 포효하며, 불을 흔든다.
 굵주린 구름이 심연 위를 떠돈다.

Rintrah roars and shakes his fires in the burdened air:
 Hungry clouds swag on the deep.
 Once meek, and in a perilous path,
 The just man kept his course along

The vale of death.
 Roses are planted where thorns grow.
 And on the barren heath
 Sing the honey bees.
 Then the perilous path was planted:
 And a river and a spring
 On every cliff and tomb:
 And on the bleached bones
 Red clay brought forth.
 Till the villain left the paths of ease
 To walk in perilous paths and drive
 The just man into barren climes.
 Now the sneaking serpent walks
 In mild humility.
 And the just man rages in the wilds
 Where lions roam.
 Rintrah roars and shakes his fires in the burdened air:
 Hungry clouds swag on the deep.(Erdman, 33)¹⁾

「주제시」에 대한 기존의 비평은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찬탈의 모티프를 프랑스 혁명이라는 당대의 상황과 도식적으로 연결시켜서 읽거나, 이 작품과 뒤에 이어지는 산문의 내용을 관련시켜 읽는 대체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왔다. 두 가지다 적절한 비평이라 생각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작품과 관련한 블레이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시에 나타나 있는 중심적 모티프는 악한에 의해 의로운 사람 린트라 내몰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로운 사람인 린트라가 “온유한 겸손(mild humility)”을 가장하고 나타난 악한에 의해 그가 가꾸었던 풍요의 땅에서 황량한 광야로 내몰리게 되자 불길을 휘날리며 파괴적인 분노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문의 특이한 점들, 그 중에서도 6행에서 8행까지 갑자기 현재 시제가 도입되는 경우와, 3행의 “a perilous path”가 9행에서는 “the perilous path”로, 15행에서는 다시 “perilous paths”로 바뀌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의로운 사람이 “험난한 길(a perilous path)”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6행에서 8행까지의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 사이에 삽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제의 삽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미와 가시, 황야와 꿀벌, 강과 절벽, 그리고 봄과 무덤간의 대조이다. 불롬은 이러한 대조에 주목하면서 블레이크에게 존재란 항상 대립적 성질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존재(non-existence)의 영역인 “편한 길(the paths of ease)”과는 달리 존재의 영역은 “험난한 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Apocalypse,75)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대조들은 불롬의 주장처럼 자연 상태에서의 반복되는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지옥의 금언」(“Proverbs of Hell”)에서 블레이크가 “인간이 없는 곳에서 자연은 황폐하다(Where man is not, nature is barren)”⁽³⁸⁾라든가 “작은 꽃을 피우는 것은 오랜

1) 이하 작품은 페이지만 명기.

세월에 걸친 노동이다(To create a little flower is the labour of ages)²⁾(37)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한 발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Interpretations, 6) 이처럼 창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던 장소인 “a perilous path”가 9행에서 “the perilous path”로 바뀐 것은 창조적 활동의 장소가 고정되고 추상화된 장소로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3행의 “붉은 진흙(Red clay)”은 아담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밀턴』(Milton)에서 묘사된 것처럼 아담은 타락하여 수축돼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²⁾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황야로 내몰리게 되고 “간교한 뱀”이 “온화한 겸손”을 띠고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인간이 처한 상태는 바로 이러한 타락의 상태이며, 따라서 린트라는 불을 치켜들고 분노로 포효하며 계시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악마”로 변화한 내몰린 예언자의 분노의 외침은 곧 다가올 계시에 대한 인식, 즉 인류의 억압된 에너지가 반역의 시기에 도달했다는 인식인 것이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의 화자는 예전의 예언적 화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파이프(Piper)는 기쁨을 주기 위해 노래하며, 바드(Bard)는 대지가 그의 창조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신성한 말씀(Holy Word)”을 선언한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결혼』의 화자는 14번째 판에서 인간의 의식을 확장하고, 세계에 대한 인습적 사유 방식으로부터 그의 정신을 구원함으로써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계시를 시작하리라고 선언한다. 화자는 계시가 천지창조 이후 6천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을 재확인하고 있으면서도 그 계시를 지각적 용어로 설명한다.

내가 지옥에서 들었던 것 그대로 세상이 육천년의 세월 끝에 불로 소멸될 것이라는 옛날의 경의 전설은 사실이다.

불타는 칼을 든 천사는 이결과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파수꾼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만물이 유한하고 타락한 듯 보이지만, 천사가 그렇게 하면, 만물은 소멸되어, 무한하고 신성한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것은 점증하는 관능적 기쁨을 받아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이 그의 영혼과는 전혀 별개의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관념은 지워 없애야만 한다. 나는 이 일을 지옥의 방법으로 부식체를 이용하여 인재를 함으로써 해낼 것이며, 지옥에서의 이 일은 유익하고 효과가 있으며, 보이는 표면을 녹임으로써 과거에 숨겨져 있던 무한성을 드러내 보인다.

만약에 지각의 문이 정화되면,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무한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 동안 인간은 모든 만물을 동굴의 좁은 틈새를 통하여 바라본다.

The ancient tradition that the world will be consumed in fire at the end of six thousand years is true, as I have heard from Hell.

2) Cf. The Divine hand found the Two Limits: first of Opacity, then of Contraction/Opacity was named Satan, Contraction was named Adam (Milton, pl. 13: 20~21).

For the cherub with his flaming sword is hereby commanded to leave his guard at the Tree of Life: and when he does, the whole creation will be consumed, and appear infinite and holy, whereas it now appears finite and corrupt.

This will come to pass by an improvement of sensual enjoyment.

But first the notion that man has a body distinct from his soul is to be expunged. This I shall do by printing in the infernal method by corrosives, which in Hell are salutary and medicinal, melting apparent surfaces away, and displaying the infinite which was hid.

If the doors of perception were cleansed everything would appear to man as it is-infinite.

For man has closed himself up, till he sees all things through narrow chinks of his cavern.(39)

이처럼 블레이크에게 계시는 전통적으로 믿어 왔던 것처럼 죄지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거나 역사와 물질세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시는 본질적으로 정신적 사건이며 세계의 변화는 인간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지각은 정화되고 확장되어 원래의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은 그와 마주치는 존재들의 모든 연속체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블레이크는 상상적 지각이 비정상적이라는 평상적 관점을 전도시킨다. 그에게 이 변용적 인식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간의 인식에 걸맞은 형식인 규범이다.

이제 인간의 인식은 “수호천사(covering cherub)”에 의해 방해받는다. 모든 천사들은 인간과 힘의 신성한 원천 사이에 존재하는데 블레이크의 상상력에서 이들은 단 한 명의 존재인 “수호천사”로 바뀌고, 이들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나무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들은 후기 예언사에서 기독교 교회의 모든 오류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 또는 반그리스도(*Jerusalem*, pl. 89, 10)의 의미를 갖는다.³⁾ 블레이크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도덕률과 가치관에 따라서 존속되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인간의 정신은 무한대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는 동굴 또는 오감(five senses)이라는 협소한 입구를 지닌 머리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신성한 힘과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와 분리되어 있고 인습적 방식으로 지각하는데 익숙해 있는 탓에 인간은 『경험의 노래』에서 대지의 대답이 시사하고 있듯이 타락의 상태로부터 깨어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능력을 빼앗긴 인간의 상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블레이크는 히브류 예언자들과 일치점을 보인다.

이러한 능력을 되찾기 이전에 방해가 되는 주요한 인습적 개념인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은 “없어져야만 한다.” 예언자로서 블레이크는 이 일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에게 예언자는 단순한 신의 사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 신성한 잠재력이 현실화되어 인간과 세계의 재창조-예레미아나 에스겔에서는 전적으로 신의 일이다-를 수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히브류 예언자들의 말은 역사를 형성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아는 신에 의해 세상을 통제할 크나큰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말을 너의 입속에 두었노라

3) 블레이크에 있어서 “수호 천사(covering cherub)”는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오류의 근원인 자기본위의 이기심을 의미한다 (Damon, *A Blake Dictionary*, p. 93).

고 나에게 이르렀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위에다 세우고는 뿌리 채 뽑고,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드리며, 세우고 심게 하리다.

Then the Lord put forth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the Lord said unto me, 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thy mouth.

See, I have this day set thee over the nations and over the kingdoms, to root out, and to pull down, and to destroy, and to throw down, to build, and to plant. (Jeremiah, 1: 9~10)

예언자의 능력은 개인적 능력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 놓여진 말의 능력으로 제시된다. 그래서 성서는 예언자의 위상을 신의 전달자로 강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의 화자는 “지옥의 방법” 또는 동판술과 성상 파괴(iconoclasm)의 부식성 방법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변용적 인식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선언한다. 동판을 만들 때의 산성 용액을 이용하여 이원론의 “표면의 모습(the apparent surface)”을 부식시켜 외관 밑에 숨겨져 있는 무한성을 밝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블레이크가 후에 인간이 실재를 인식하는데 방해하는 존재를 부를 때 사용한 ‘the Spcetre’ 혹은 “외피(Incrustation)”(*Milton*, pl. 40: 34~5)라 한 것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 의도, 힘 그리고 전략은 모든 예언자적 시인의 상상적 인식 혹은 시적 정기에서 나온다.

블레이크는 목전에 닥친 계시를 선언한 14번째 판 전후의 두 「기억할만한 환상」(“Memorable Fancies”)을 통해 예언자에 대한 급진적 사상을 제시하고 정당화한다. 두 번째 「기억할만한 환상」에서는 이사야와 에스겔 두 예언자를 통하여 블레이크는 예언자의 역할, 자질, 방법, 권위 그리고 전승에 대한 그의 관점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블레이크는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대변자로 이용하여 예언자와 예언에 대한 정의를 극적으로 제시한다. 화자와 예언자 이사야의 대화는 신이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느냐, 혹시 오해를 받아서 “imposition”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화자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예언자인 이사야와 에스겔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신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 왔다고 단언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때 그들이 오해를 받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imposition’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The prophets Isaiah and Ezekiel dined with me, and I asked them how they dared so roundly to assert that God spake to them: and whether they did not think at the time that they would be misunderstood, and so be the cause of imposition.(38)

이 때의 “imposition”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예언이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 예언이 이용되어 억압의 수단인 “기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은 곧 그의 예언적 소명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나는 유한한 유기체의 지각으로는 신을 보지도, 신의 목소리를 들어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의 감각이 만물속의 무한성을 발견했고, 그때 나는 분명히 정직한 분노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나는 결과에 대해 개의치 않고 써내려갔다.’

‘I saw no God, nor heard any, in a finite organical perception: but my senses discovered the infinite in everything, and as I was then persuaded, and remain confirmed, that the voice of honest indignation is the voice of God, I cared not for consequences but wrote.’(38)

제한된 오감으로는 신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분노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썼다는 이사야의 대답은 예언적 글쓰기에 대한 블레이크의 생각을 보여준다. 정직한 분노의 소리와 신의 소리를 동일시하는 이 진술은 종종 예언자에 대한 블레이크의 다른 진술과 연계되어 인용되곤 한다. 이 진술을 하기 전에 이사야는 육체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묘사하고는 “모든 존재들 속에 내재한 무한성을 발견한” 변용적 인식으로 신을 보았던 것과 신에게 들었던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블레이크의 이사야는 순수의 화자와 경험의 예언적 화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존재에 내재한 신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정직한 분노의 목소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그 소리는 예언적으로 인식된 신성하고 무한한 세계와 사람들이 간혀 있는 세속적으로 인식된 타락하고 유한한 세계 사이의 차이를 명백하게 인식함으로써 나오는 것이다. 용기, 정직 그리고 변용적 인식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예언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지만, 극소수만이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예언자 이사야와 에스겔의 잇따른 설명을 통해 변용적 인식이 예언이 중심적 원천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화자가 이사야에게 “사물이 그러하다는 강한 확신이 사물을 그렇게 만듭니까(Does a firm persuasion that a thing is so, make it so?)”라고 묻자, 예언자는 “모든 시인은 확신이 그러하며, 그리고 상상력의 시대에는 강한 확신이 산을 움직였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많은 시인들이 사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All poets believe that it does, & in ages of imagination this firm persuasion removed mountains, but many are not capable of firm persuasion of any thing)”(38~9))라고 대답한다. 이사야 스스로 자신을 시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블레이크는 그로 하여금 믿음은 산을 움직일 수 있으며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을 인용하게 한다.⁴⁾ 이사야는 마치 「주제시」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위험한 길”을 낙원으로 변화시켰듯이 세계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상상적 인식에 의해 이 말을 해석한다.

4) Cf. And Jesus said unto them, Because of your unbelief: for verily I say unto you, If ye have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ye shall say unto this mountain, Remove hence to yonder place: and it shall remove: an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unto you (Matthew, 18: 20).

For verily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shall say unto this mountain, Be thou removed, and be thou cast into the sea: and shall not doubt in his heart, but shall believe that those things which he saith shall come to pass: he shall have whatsoever he saith (Mark, 11: 23).

진리와 상상의 실재에 대한 믿음은 진실로 “죽음의 골짜기”를 움직일 수 있다. “상상력의 시대”에 대한 이사야의 관점은 11번째 판에서 시가 체계화된 종교로 통합되기 전의 시대에 대한 화자의 묘사와 일치한다.

고대의 시인들은 이름을 짓고, 숲, 호수, 도시, 나라, 그리고 그들의 확대된 수많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특성으로 치장함으로써, 감지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신성과 정기로 생명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각 도시와 나라의 정기를 정신적인 신성 안에서 연구했다.

The ancient poets animated all sensible objects with gods or geniuses, calling them by the names, and adorning them with the properties, of woods, rivers, mountains, lakes, cities, nations, and whatever their enlarged and numerous senses could perceive.

And particularly they studied the genius of each city and country, placing it under its mental deity.(38)

고대 시인들이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시적으로 묘사한 것은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세계를 능동적으로 인식해 가는 과정을 암시한다. 에식(Robert N. Essick)의 지적대로 이들이 대상에 붙인 “이름”은 대상의 본질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본질이 인간과 세계의 역동적인 만남인 이름 붙이기라는 활동에서 생겨난다는 점에서 고대 시인들의 활동은 신에 의해서 주어진 본질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는 창세기의 아담의 활동과는 다르다.(123) 확장된 감각 또는 활발한 인식을 통해 “모든 지각할 수 있는 대상들”을 완전무결한 존재로 판별하고 이들을 신성하고 무한의 계획 속에서 “신 또는 정기”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시인이다. 시인의 변용적 인식은 이교의 신들과 반신(demigod)의 기원이 되는데, 이들은 시인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시인들의 창조적 활동이 체계로 추상화되면서, 사람들은 모든 신성이 인간의 가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자 어떤 체계가 세워지자 일부가 이를 이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대상들로부터 정신적인 신성을 분리하거나 혹은 신성을 실현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일반대중을 예속화했다. 그리하여 시의 이야기로부터 숭배의 형식을 선택하는 성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신이 이러한 일을 명령했다고 선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인간의 가슴속에 모든 신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 버렸다.

Till a system was formed, which some took advantage of and enslaved the vulgar by attempting to realise or abstract the mental deities from their objects. Thus began priesthood-choosing forms of worship from poetic tales.

And at length they pronounced that the gods had ordered such things.

Thus men forgot that all deities reside in the human breast.(38)

성직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실현한다(realise)”고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위는 “추상화(abstract)”의 과정이다. 추상화 과정은 인간이 능동적·창조적 과정을 통하여 인식한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여기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했던 이름 붙이기는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힘을 잃고 추상화되고 고정되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부정적 요소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의 창조성의 소산을 오히려 주인으로 섬기게 됨으로써 신과 인간은 분리되게 되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신성을 망각하게 된다.

블레이크의 에스겔의 말대로 예언은 “사람들을 무한성에 대한 인식에 이르도록 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무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굴의 좁은 틈새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이유는 자신이 시적 정기를 대상화하여 신으로 숭배하고 “인간이 영혼과 분리된 육체를 가졌다는 생각”에 빠져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세계를 고정 불변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한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스런 경험이 아니라, 자신에 내재한 신성인 “시적 정기”의 무한성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블레이크의 에스겔은 모든 신성의 궁극적 원천으로서 시적 정기에 대한 사상을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우리들은 시적정기가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다른 나라들의 승려와 철학자들을 경멸하고, 모든 신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롯되고 시적정기의 지류로 밝혀지리라고 예언하게 되었다.

We of Israel taught that the Poetic Genius (as you now call it) was the first principle, and all the others merely derivative-which was the cause of our despising the priests and philosophers of other countries, and prophesying that all gods would at last be proved to originate in ours and to be the tributaries of the Poetic Genius.(39)

블레이크의 시적 정기의 개념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예언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그는 이 개념을 인간을 이루는 기본 능력으로 제시하고 인간의 감각 뒤에 있는 잠재력으로서 그 의미를 강조한다. 그는 인간이란 결코 감각 기관에 의해 수동적으로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창조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적 정기는 이처럼 변용적 인식의 첫번째 원칙으로 정의된다. 블레이크는 시적 정기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상상력과 동일시한다. 상상력이 지각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지던 시기에 블레이크는 이미 변용적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때 변용적 인식은 감각 자료들을 통합하고 동시에 감각 자료들을 개인적 삶의 시각 속으로 재창조하는 감각의 근원을 의미한다. 피셔(E. Fisher)의 견해를 빌린다면 이것은 “인간이 자신과 궁극적 목적을 가장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을 때의 개인을 의미하며, 그것의 작용은 인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18) 시적 정기의 반영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존재는 파생적이며 의존적이다. 그래서 시적 정기의 작용에 최대한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존재는 독창적이면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블레이크의 시적 정기는 변용적 인식과 존재의 궁극적 근원 속의 인간의 이외의 기능들을 결합하며, 상상력은 일시적 존재와 영원한 존재 사이의 공통적 요

소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와 동일시되어야 하며, 그의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인식의 자연적 한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블레이크는 허브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시인의 또 다른 유산과 예언적 성격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두번째 「기억할만한 환상」에서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Diogenes)를 끌어 들인다. 블레이크는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자의 기묘한 행위들이 디오게네스의 경우처럼 똑같은 동기에 의해 유발된 것임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이사야와 에스겔에 의해 제시된 구약의 예언적 전통과 디오게네스에 의해 제시된 그리스의 예언적 전통을 통해 그의 목적과 방법의 전례를 찾았음을 제시한다. 두 번째 환상이 끝날 무렵 화자는 각각 이사야와 에스겔에게 특이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성서에서 신은 이 행위들의 의미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데, 다시 말해서 각각의 행위들은 이스라엘, 유대 또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의존하리라고 선택한 이웃 국가들에 앞으로 닥쳐올 역경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예언자들로 하여금 특이한 행위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설명하게 한다. 이사야는 그의 별난 행위가 인습이라는 장애물과 인습적 사유 방식을 깨뜨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 인식하게 할 삶의 철학을 극적으로 제시했던 디오게네스와 똑같은 동기를 지닌 것임을 설명한다. 또한 에스겔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성을 인식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비록 성서에 대한 블레이크의 읽기가 극히 개인적이긴 하지만, 예언자의 입 속에 넣어진 그 읽기는 앞서의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다. 신성한 말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마음에 충격을 가한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겔의 대답은 블레이크가 예언자적 시인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과 상징을 이용한 것이나 그의 특유의 수사적 전략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위대한 옛 예언자들로 하여금 영감의 원천과 예언자와 예언에 대한 그의 관점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블레이크는 자신의 예언가적 자질을 정당화한다. 또한 시적 정기가 비록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을지라도 여태까지 언제나 원동력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며, 그리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

III

블레이크는 기독교적 이원론과 특히 스위든보그의 작품에 예시된 인습적 사유 방식을 배격하고 진정한 사유 방식으로 대립의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정신적 계시를 시작한다. 블레이크는 세계의 존재 형태를 대립물의 상호 의존적 형태로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에서 만물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 힘이 나옴을 강조한다. 블룸은 블레이크의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요인으로 “그가 과연 어느 곳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즉 “작품의 아이러니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번째 판에서는 아이러니를 배제한 대립의 원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제시된다.(*The Ringers*, 55)

대립이 없다면 진보도 없다. 흡인과 반발, 이성과 에너지, 사랑과 증오는 인간존재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립으로부터 종교인들이 선과 악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생겨난다. 선은 이성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것이고, 악은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능동적인 것이다. 선은 천국이요, 악은 지옥이다.

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 Attraction and repulsion, reason and energy, love and hate, are necessary to human existence.

From these contraries spring what the religious call good and evil. Good is the passive that obeys reason: Evil is the active springing from energy.

Good is Heaven: Evil is Hell.(34)

이 글에서 언급된 대립 원리들은 언뜻 보면 에너지, 욕망이라는 소위 악마의 진리를 내세우면서 이성으로 대표되는 추상화된 적들과의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타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율배반적이고 여러 모순적인 특성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의 시처럼 블레이크가 물질과 정신의 합일을 주장하는 일원론자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둘 간의 차이를 확연히 구분해 놓은 이원론 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⁵⁾ 그러나 이 글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원리의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 원리가 어떤 진리를 함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네번째 도판은 실제로 모든 형태의 이원론을 반대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도 종교의 오류는 대립 요소들을 서로 구별되는 도덕적 범주로 나누고 그것을 이원론적 형태로 해석한 데 있다. 즉 전통적 도덕이나 종교관에서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에너지를 오히려 악의 요소로 억압하고, 굳어지고 닫힌 억압의 원천인 이성을 선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육체에, 이성은 영혼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원적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며, 블레이크는 이를 「악마의 소리」("The Voice of the Devil")를 통해 지적한다. 이 때 오류를 선언하는 화자의 소리는 악마의 소리와 병치를 이룬다.

모든 성경이나 신성한 법전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오류의 원인이다.

5)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중심으로 블레이크가 일원론자인가 혹은 이원론자인가 하는 논쟁은 최근에 들어서서 그가 일원론자에 가깝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가령 대먼(S. Foster Damon)은 대립론은 심리적 구조 안에서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이 대립요소들은 "하나의 단일체"인 블레이크의 "역동적"인 정신세계 속에서 "함께 작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Damon, *A Blake Dictionary*, p. 262), 너미(Martin Nurmi)는 "무한한 상상력 속의 존재의 전체성"은 그 대립요소들이 "창조적 갈등 속에서 공존하는" "일종의 통합된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Nurmi, *William Blake*, p. 75), 페일리는 "블레이크는 자신의 신화 체계 안에서 이원적 입장에 갇히게 된 일원론자(Blake was a monist who found his mythology entrapping him in a dualistic position)"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Morton D. Paley, "The Figure of the Garment" in *The Four Zoars, Milton & Jerusalem*, ed. S. Curran & J. A. Wittreich, Jr.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3], p. 123), 마지막으로 댄로스(L. Damrosch)도 블레이크를 두고 "일원론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 이원론자(a dualist who wishes he were a monist)"(Damrosch, *Symbol & Truth in Blake's Myth*, p. 166)라고 말하고 있다.

1. 인간은 실재하는 두 가지의 존재원리, 즉 육체와 영혼을 지닌다.
2. 악이라고 불리는 에너지는 오로지 육체로부터 오고, 선이라고 불리는 이성은 오로지 영혼으로부터 온다.
3. 신은 인간이 에너지를 따른다는 이유로 인간을 영원히 괴롭힐 것이다.

All bibles or sacred codes have been the causes of the following errors:

1. That man has two real existing principles, viz. a body and a soul.
2. That energy, called evil, is alone from the body, and that reason, called good, is alone from the soul.
3. That God will torment man in eternity for following his energies.(34)

악마는 우선 “신성한 법전”에 의해 영속화된 첫번째 오류가 두 가지의 실재하는 인간의 존재원리, 즉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근본적 이원론에 있음을 설명한다. 이처럼 육체와 영혼을 구별함으로써 에너지, 육체, 악이라는 부류와 이성, 영혼, 선이라는 부류로 구별하는 두번째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일단 이러한 자주적 원리들이 설정되자 계층적인 도덕 질서가 불가피해지는데, 바로 여기에서 세번째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악마는 즉각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오류들에 반대하여 다음의 대립 요소들이 사실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앞의 오류들에 대한 다음의 대립물들이 옳다.

1. 인간은 영혼과 구별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육체라고 불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영혼의 주요 입구인 오감에 의해서 감지되는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2. 에너지는 유일한 생명이고 육체로부터 오며, 이성은 에너지의 한계, 외부의 경계선이다.
3. 에너지는 영원한 희열이다.

But the following contraries to these are true:

1. Man has no body distinct from his soul, for that called body is a portion of soul discerned by the five senses, the chief inlets of soul in this age.
2. Energy is the only life and is from the body, and reason is the bound or outward circumference of energy.
3. Energy is eternal delight.(34)

악마의 관점은 때때로 화자의 관점과 동일하며 이외에 가끔씩 조금씩 다르거나 왜곡돼 있다. 예를 들어 악마의 “진정한” 원리 중 첫째 원리는 “인간은 영혼과 구별되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사라져야만 한다”라는 14번째 판의 화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악마의 두번째 원리는 에너지만이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진술은 16번째 판에서 화자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데, 이때 화자는 거인들과 넘침의 원리를 생명의 생산자로 설명한다. 에너지와 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악마의 묘사 역시 넘침의 원리와 삼킴의 원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설명과 유사하다. 이 두번째 원리는 대립적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대립 원리는 “외부의

경계선"과 에너지로 충만한 내면 사이의 관계, 즉 하나의 형상 혹은 육체의 경계선과 내면의 관계를 나타낸다. 악마가 육체를 에너지의 원천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타락한 육체가 아니라 "지각의 문을 닫는다면" 영혼처럼 무한히 확대될-그러나 외부의 경계선을 갖고 있는-인간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존재는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고 논리적으로 다른 존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는 상대 존재와 관련을 갖고 있을 때만 "진정한" 것이다. 이 대립 개념으로 이루어진 형상은 대립 요소들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적대감이라는 점에서 일원론도 배제한다. 그러므로 악마의 목소리는 편향적 진리를 대변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성을 성취하고 두 대립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의 소리이다.(Nurmi,35~6) 악마의 세번째 원리는 "영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는 그 대립물로서 이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명 부분적으로만 진리이다. 따라서 화자와 악마가 일관되게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악마의 어휘, 범주 그리고 도발적 어조는 화자의 그것들과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화자가 어느 정도 방어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밀러(Dan Miller)는 심지어 "악마는 세번째 판에 나오는 화자와 대립적으로 추론한다. 합리적 대립물에 맞선 에너지 대립물의 방어와 이 두 가지 대립물을 포용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에 대한 주장을 결합한다"라고 주장한다.(496) 그러나 악마는 두 대립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은 종교와는 다른 대조적인 주장의 형식을 통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3번째 판과 4번째 판에서 대립 원리가 그나마 짧게 서술된 이후 이어지는 상당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대립 원리가 제시되지 않고 한쪽 부분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블레이크가 지옥의 편에서 천국을 비판하고, 악의 편에서 선을 조롱하며, 에너지의 목소리로 이성을 배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멜러(Anne K. Mellor)는 에너지와 이성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변증법적인 결론은 헤겔식의 조정과 화해가 아니라 억압적 반대 세력으로 인해 보다 강력해진 에너지의 방출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블레이크의 사상은 그래서 변증법의 체계를 갖는다. 첫 번째 단계인 정(正)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반(反)인 이성과 대립되지만, 의미심장하게도 블레이크의 변증법의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합(合)에서는 에너지가 강화된다. 이처럼 비록 이성이 변증법의 체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 체계 자체는 계속해서 새롭고, 계속해서 창조적인 에너지 혹은 영원한 기쁨이 끊임없이 산출된다.(46)

블룸은 투쟁의 욕구를 위해 이성의 존재는 필요하지만, 이성은 "영원한 기쁨"인 에너지를 결코 촉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The Ringers*, 75) 어드만도 에너지의 경계선으로 이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성은 삶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178) 이처럼 많은 비평가들이 이 부분에서 블레이크의 대립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래리시(Edward Larrissy)가 제기한 의문도 그 중의 하나이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 논의된 대립물은 한쪽 극단이 에너지 혹은 유사한 어떤 개념을,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에너지의 결핍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어떤 일반적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몇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한쪽 극단의 역할이 다른 한쪽의 반영에 불과한, 즉 다른 한쪽의 결여상태일 뿐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이 '허약한' 반대물이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분명히 다른 한쪽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한쪽을 블레이크가 강하게 옹호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조건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97)

래리시가 제기한 의문은 우선 블레이크가 대립 요소 중 한쪽을 다른 쪽보다 강조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립 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대립 요소들이 진정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블레이크가 한쪽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래리시가 제기한 의문이 타당한 것이라면 앞서 설명한 대립 원리가 무엇인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밀러는 에너지로 충만한 내면과 외부의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형상의 모습은 대립 원리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498)

대립의 원리는 변용적 인식의 기법을 구성하고 있는데, 블레이크는 그 기법을 세계를 바라보는 규범적 방식으로 독자의 정신에 자리하도록 시도한다. 대립물간의 창조적 갈등을 통한 과정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립의 원리는 대립물 양쪽을 용인하여 인식자가 대립물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도록 그 대립물들을 개방한다. 이렇게 보다 확장된 목적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갈등은 파괴적 방향이 아니라 창조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블레이크에 따르면 대립의 역동성은 열여섯번째 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주의 힘의 원리를 나타낸다.

이 세계를 감각적인 존재로 만들어내고, 이제 그 속에서 족쇄에 채여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인들은 사실은 세계의 생명의 동인이며 모든 행위의 근원이다. 그러나 그 족쇄들은 허약하고 길들여진 간교한 마음이며, 그 마음은 에너지에 저항할 힘을 지니고 있고, 금언에 따르면, 용기를 결여한자가 간교함에 강하다.

그리하여 존재의 한 부분은 넘침의 원리이고, 다른 부분은 삼킴의 원리이다. 삼키는 자에게 넘치는 자가 그의 족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오직 존재의 부분만을 택해 전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넘침의 원리는 삼키는 자가 그 기쁨의 넘침을 바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넘침을 그치게 될 것이다.

The giants who formed this world into its sensual existence, and now seem to live in it in chains, are in truth the causes of its life and the sources of all activity: but the chains are the cunning of weak and tame minds, which have power to resist energy-according to the proverb, 'the weak in courage is strong in cunning.'

Thus one portion of being is the prolific, the other, the devouring. To the devourer it seems as if the producer was in his chains, but it is not so: he only takes portions of existence and fancies that the whole.

But the prolific would cease to be prolific unless the devourer as a sea received the excess of his delights.(40)

블레이크의 관점으로 보면 세계의 힘은 “이 세계를 감각적 존재로 형성하고”, “실제로 삶의 동인이자 모든 행위의 원천”인 거인들과 그 거인들을 사슬로 구속하는 “허약하고 길들여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존재의 한 부분은 넘침의 원리이고 다른 부분은 삼킴의 원리이다” 더욱이 모든 인간은 이 두 “부류”의 하나에 속해 있으면서 우주의 역동성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갈등은 헤겔식 변증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절하게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삼킴의 원리가 아니라 넘침의 원리가 이러한 역동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넘침의 원리만이 대립의 작용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본질상 삼킴의 원리는 정적인 가치 체계로서 역동적 가치 체계를 침해하여, 기존 체계에 근거하여 삶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원리로서 블레이크가 후에 “부정(negation)”의 원리라고 명명하게 된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대립 요소들은 균형이 잡히고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형태로 가까워질 때마다 교묘하게 그 균형이 깨뜨려진다. 삼킴의 원리는 우선 존재의 일부분이고 삼킴의 원리는 다른 한쪽을 구성한다. 다음에 삼킴의 원리는 그 자체의 존재 기반이 없이도 그저 허위를 훔칠 수 있는 “존재의 부분”만을 소유한 채 나타난다. 존재의 진리는 삼킴의 원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지만, 허위에 의해 쉽게 구속된다. 비록 허위이긴 하지만 삼킴의 원리만이 지각할 수 있다. 한쪽이 존재를 형성하면 다른 쪽은 그 존재를 환영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처럼 대립 요소들은 적대적이긴 하지만 그 반대로 같은 이유 때문에 공존이 와해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오직 신만이 넘치는 존재인가?’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신만이 행동하며, 존재하는 것들 혹은 인간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대답한다.

이 두 계급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적이어만 한다. 이들을 화해시키려는 자들은 누구든지 존재를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종교는 이들을 화해시키려는 존재이다.

Some will say, ‘Is not God alone the prolific?’ I answer, ‘God only acts and is in existing beings or men.’

These two classes of men are always upon earth, and they should be enemies: whoever tries to reconcile them seeks to destroy existence.

Religion is an endeavour to reconcile the two.(40)

넘침의 원리와 삼킴의 원리 사이의 적대감은 인간의 존재에서는 결코 제거될 수 없고, 오히려 이들을 화해시키려는 자는 존재 자체를 파괴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블레이크가 종교를 이 대립 요소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종교가 일체의 대립 요소들 간의 분쟁을 넘어 절대적인 초월의 존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즉 종교는 화해될 수 없는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킨다. 대립물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그 대립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때, 즉 인간이 세계에 대한 변용적 인식이 더욱 확장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영혼, 이성, 신으로 이어지는 한쪽 존재에 육신, 에너지, 악이라는 다른 쪽 존재를 대립시키면서도, 그 대립은 육신이 지닌 타락하지 않은 잠재력이 실현

될 때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블레이크의 대립 원리를 실체를 밝히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론으로 많은 비평가들이 변증법을 원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접근 방법은 두 가지이다. 즉 변증법과 관련시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논하는 경우와 변증법과 구별시켜 논의하는 방법이다.⁶⁾ 특히 블룸은 변증법의 개념이 대립 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설명하려 한다. 그는 “하늘과 지옥이 한 육신 또는 한 가족이 되지 않고도 결혼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블레이크가 대립 요소들을 구체화시키자는 이원론적 입장이나, 대립 요소들을 단일체로 만들려는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어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의 3번째 판을 블레이크가 변증법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비록 그 변증법이 “초월성이 결여된 변증법(a dialectic without transcendence)”이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블룸 변증법이 이 작품의 통일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립 원리를 기술하는데 충분한 용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블룸은 블레이크의 예언시 특히 『예루살렘』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대립 원리의 진리를 “변증법의 의심할만큼 변증법적인 것”이라 설명한다.(*The Ringers*, 56~7)

분명히 변증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립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대립 원리는 변증법적일 수 없다는 부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대립 원리 그 자체가 정확한 공식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립 요소들은 오직 관계에 따른 존재만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계 그 자체나 혹은 에너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블레이크가 비판하는 추상화의 과정일 뿐이다.

만약에 블레이크의 상세하고도 설화체식의 구절들이 상반되는 진술에 대한 어떤 최종적 결론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서로를 한정하고 필연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대립물들은 똑같은 영역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두개의 존재원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떤 화해 혹은 반어적인 의미에서 분리를 허용할 수 있는 “존재” 혹은 “실체”(existence or beings)를 공유하지 않는다. 대립은 공통적인 토대가 없는 갈등의 상태이다. 에너지에서 그 한계까지, 욕망에서 이성까지, 근본적으로 분리된 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비약만이 존재할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립은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관계의 결여이다. 대립물은 어떤 진정한 관계를 필요한 공유된 실재가 없이 갈등하며 함께 결합되어 있다.(502~3)

결국 블레이크의 대립 원리는 어느 한 용어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립 원리에 대한 블레이크의 주장과 설명을 읽다 보면, 이성과 에너지가 서로 정반대의 대립 요소들이면서 상호의 적이며, 그러면서도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리될

6) 특히, 펀터와 댐로슈는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펀터는 변증법의 전통이 헤라클리투스(Heraclitus), 브루노(Bruno) 그리고 보엠(Boehme)을 거쳐 블레이크와 헤겔에 이르러 절정을 보이며, 헤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블레이크에 있어서도 변증법은 진보적, 종합적 그리고 초월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David Punter, *Blake, Hegel and Dialectic* [Amsterdam: Editions Rodolphi, 1982]) 이에 반해 댐로슈는 “헤겔이라면 블레이크의 신화가 비유적 개념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고 얘기했을 것이며, 또한 블레이크는 ‘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이란 구절 속의 ‘progression’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었다”라고 하여 헤겔과 블레이크를 같은 시점에서 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Damrosch, *Symbol and Truth in Blake's Myth*, p. 179).

수 없으면서도 분리되고, 그리고 분리되어야 한다.

그 적절한 위치로 대립의 원리를 부활하기 위해 블레이크는 삼킴의 원리를 그 균립하는 위치에서 떨어 뜨려야 한다. 그래서 다소 거칠고 종종 충격적인 비평 양식을 이용하여 기독교적 이원론과 부정 또는 그 이원론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유 방식을 해체하려 한다. 그는 그리하여 악마의 소리와 지옥의 금언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양식은 전통적 믿음을 대담하게 비난하면서 절반의 실재를 부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네번째 「기억할만한 환상」에서 악마적으로 전복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블레이크는 인습적 믿음의 궁극적인 자기 파괴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각자의 “형이상학”에 따라 화자와 천사의 “영원한 운명”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대립의 상황 내에 위치한다. 끝에 가서 화자는 “우리는 서로를 이용한다”라고 함으로써 방금 보여준 비전이 결국 그의 관점에서 나온 것임을 함축적으로 인정한다. 화자는 더 나아가서 이 네번째 환상을 요약하고 있는 “반대는 진정한 우정이다”이라는 격언을 제시한다. 더욱이 천사와의 대화에 나타나 화자의 반어적 소리는 그가 묘사하고 있는 비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특유의 초연하고도 사실적인 화자의 어조는 아마도 스위든보그의 어조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른다. 스위든보그는 저자의 상상적 경험이 경외의 원천인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겸손하게 보이는 의도적인 사실적 어조를 통해 비전과 꿈을 전하고 있다. 블레이크는 천사와 악마, 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스위든보그의 인습적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어조를 채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조는 상상적 인식의 진리에 대한 예언자적 시인의 주장을 심각할 정도로 격하시켜 버린다. 악마적이며 반어적인 양식을 통해 천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블레이크는 또 다른 천사가 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술과 비전을 반쪽의 진리로, 그리고 대립물 중의 하나로서 제시함으로써 블레이크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힘을 빼앗아 버린다. 그것이 대립의 원리이든, 이사야와 에스겔의 담화이든 간에 천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비전이든 간에 모든 것이 대립의 상황 속에 극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열린 텍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번째 「기억할만한 환상」에서 지옥의 인쇄소에 대한 비전을 통해 블레이크는 예언적 방법의 여섯 단계의 과정을 밝히고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무한성과 신성에 대한 인식을 입증한다. 지옥의 인쇄소에서 글쓰기는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전통과의 창조적인 만남을 통한 새로운 해석과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의미는 독자와 화자의 역동적인 만남을 통해서 발견 생성된다. 블레이크는 변용적 인식이 지닌 신성한 능력을 단순하게 선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방법”이라는 메터퍼와 “지옥의 인쇄소”에 대한 비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즉 신성하고 무한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의 인식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블레이크는 “지옥의 방법을 통한 인쇄”의 메터퍼를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로 사용한다. 우선 이 방법은 텍스트와 디자인의 본을 뜨고 종이에 인쇄하기 위해서 산으로 동판의 표면을 부식시킴으로써 완성되는 블레이크의 작품의 조각술을 나타낸다. 또한 이 방법은 지옥에서 문명의 기존 질서를 부식시키는 악마(Devil)의 행위를 의미한다. 게다가 이 방법은 블레이크의 전복적 방식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동굴의 좁은

틈새” 또는 오감이라는 좁디좁은 창문을 깨뜨려 열므로써 블레이크가 성취하려고 시도한 계시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이 방법의 부식성 성격은 또한 블레이크의 예언시에 대해 독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지적 투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14번째 판은 블레이크가 독자들에게 지우려는 엄청난 요구를 정당화하는 글로서도 읽힐 수 있다. 은유적 방식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블레이크는 조각술과 인쇄 방법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무한한 의미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조각의 과정은 감정 전이의 의미로 본다면 하나의 메타퍼일 뿐만 아니라, 계시를 가져올 실제적 수단이기도 하다.

지옥의 인쇄소에 대한 블레이크의 비전은 이처럼 그의 예언적 인식을 입증한다. 인쇄소의 여섯 개의 방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은 다양한 해석을 받아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읽기가 두드러져 보인다. 우선 블룸은 주로 인쇄소의 묘사를 작업 중인 예술가의 정신에서 발생하는 변용의 관점을 통해 읽는다.

여섯 번째 방인 “지옥의 인쇄소”는 예술적 창조를 표현하는 엘리고리이며, 이전 도판에서 예언된 대로 “관능적 즐거움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된다. 남근을 표상하는 용인간(Dragon Man)은 우리의 다른 감각들을 확장하면서, 우리의 촉감을 방해하는 심리상의 하찮은 생각들을 제거한다. 통제와 관습을 표상하는 뱀은 타락한 우리의 상태주위를 감싸고 있고, 다른 뱀들은 현란한 장식에 의해 그 실재를 감추려고 한다. 상상력을 표상하는 독수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무한하게 함으로써 뱀을 패퇴시키지만, 반면에 사람과 같은 독수리는 거대한 질벽과도 같은 우리의 일시적인 폐허 속에서 그들의 일을 창조해 나간다. 네 번째 방에서는 통제를 표상하는 뱀에 의해 도입된 타락한 현상으로 이루어진 금속들은 활 활 타오르는 모든 상상적 개념을 표상하는 분노한 사자에 의해 녹여져 생명의 생생한 물인 시적재료(materis poetica)로 바뀌게 된다. 다섯 번째 방은 예이츠(W. B. Yeats)의 시 「Byzantium」에 등장하는 “황금대장장이”와 같은데, 거기에서 “이름없는 형상들(Unnam'd forms)”은 분출하는 영혼들을 타파하여 여섯 번째 방으로 내던지면, 그 방에서 “넘치는 자”라고 불리는 다음의 계급의 사람들이 창조과정을 마무리한다.(Apocalypse, 89)

블룸은 첫번째 방의 “동굴”을 이전의 판(pl 14)의 마지막 문장인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가두고는 마침내는 만물을 그의 동굴의 좁은 틈새를 통하여 보기 때문이다(For man has closed himself up, till he sees all things thro narrow chinks of his caven)”의 직접적인 연속으로 보고 인간의 신체로 해석한다. 이와 같이 첫번째 방에서의 행위는 예술가 자신의 감각의 확장을 의미한다.

한편 두번째 방법의 읽기에 대해 인쇄소에서의 행위들은 삽화집(the illuminated books)의 제작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바위뿐만 아니라 동굴 역시 ‘용인간’이 조각하고 뱀이 채색(장식)하고 있는 조각판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세번째 방은 시적 정기의 사상과 비전을, 4번째 방은 에칭(etching), 다섯째 방은 완성된 작품이 틀에 넣어 만들어지는 인쇄실을 언급하며, 여섯째 방은 각 판이 “책의 형태”으로 맞추어져 고객들이 그 책을 받아서는 서재로, 도서관으로 보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인쇄소에 대한 블레이크의 비전의 독특한 성격은 이처럼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읽기를 동시에 허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 비전은 조각 과정과 타락한 인간의 정신을 나타내는 “동굴”이라는 단일한 메타퍼를 사용하여 인식의 주체와

객체를 융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판에서처럼 동굴은 오감 중 4가지의 출구 또는 다섯 개의 출구를 갖고 있는 육신-육신을 영혼에 대한 무덤-동굴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플라톤적 메타퍼-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두뇌(머리)를 의미한다. 동굴은 또한 블레이크의 채색화집을 만들기 위한 동판 즉 첫번째 “Memorable Fancy”에서 록크의 경험론에 의해 상상된 정신과 동일시되었던 판이기도 하다. 블레이크는 이 판 속에 조각하고 그림을 그려 넣고 채색하고 잉크를 문혀 인쇄한다. 더욱이 이 과정은 동시에 독자가 이 채색화집을 보게 될 때 독자의 감각을 확장하거나 정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쇄소에 대한 비전은 예술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대로의 창조 과정과 조각과 채색화집의 인쇄 과정뿐만 아니라 독자가 그 작품을 읽고 있을 때의 독자의 의식의 확장 과정을 동시에 구체화한다. 이처럼 이 비전은 모든 존재에 내재한 신성하고 무한한 의미에 대한 인식을 입증한다.

IV

이전의 작품들과 같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경험적인 인습적 생활 방식으로부터 독자의 정신을 구원하려 하지만, 이 목적을 위해 블레이크가 이용한 수단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블레이크는 상상적 양식, 다양한 시각의 극적 제시, 문학 장르의 수정적 활용, 그리고 성서와 밀턴에의 인용 등을 통해 대립의 원리를 선언하면서 입증하고, 또한 인습적 사유 방식을 해체하면서 정신적 계시의 착수를 모색한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의 다양한 형식의 혼성은 부분적으로 스유티든보그의 작품에 대한 블레이크의 반응의 결과이지만, 주로 그의 예언적 목적에 적합한 형식에 대한 블레이크의 실험적 모색의 결과이다. 비록 블레이크의 논리와 그의 독자가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지나치게 불확정적인 방어적 형식은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데 필요한 예언적 능력이 결여돼 있다. 블레이크가 이러한 형식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물론 그 형식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는 열려 있으면서도 강력한 소리 다시 말해서 “사물이 그러하다는 강한 확신이 사물을 그렇게 만든다”는 확신의 소리와 전제적 부담이 아닌 소리, 즉 신성한 진리를 선언하고 대립을 부정하지 않는 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일 논리와 대화 논리 사이의 이러한 긴장감은 블레이크의 후기 예언시를 특징짓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블레이크의 예언에 내재하는 긴장감, 다시 말해서 그의 비전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상상적 시인과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그 말은 너희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이다(Mark well my words! they are of your eternal salvation)”(Milton, pl. 2: 25)라고 선언하는 교훈적 시인 사이의 긴장감등 두논리의 충돌을 만족시키고 권위를 지닌 단일한 소리를 모색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학 장르, 어조, 기법들을 실험한 결과 마침내 「자유의 노래」(“A Song of Liberty”)에서 적절한 양식을 발견하게 된다.

전형적인 선언서가 대체로 그렇듯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인간을 오류에 속박시켜 온 “모든 신성한 법전”, 즉 외형적으로 보면 “체계적 추론”을 추종했던 예언가 스유티든보그와 그의

아류들, 세속 경험과 타락한 육체를 찬양하는 천사의 무리들, 즉 블레이크가 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영원에의 계시를 방해하는 모든 적들을 목표로 삼는다. 1790년 블레이크가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쓰기로 선택한 바로 그 해는 스워드보그가 1757년-블레이크가 출생한 년도-시작되리라고 선언한 새로운 신의 섭리가 33년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바로 그 해에 블레이크는 진실로 혁명적인 신의 섭리가 목전에 다가 왔음을 느낀다. 같은 시기 또는 그 앞선 시기에 쓰여진 그의 예언서에서 블레이크는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연속성과 계시록적 의미를 밝히려고 애를 썼으며,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는 건강한 존재 방식을 제시하여 스스로를 그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계시를 출범시킬 임무를 떠맡게 될 예언자로 선언한다.

기독교적 이원론과 그 토대를 이루는 원리들을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규범으로 공격하면서 블레이크는 세계의 전체적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 대립의 원리를 제시한다. 또한 예언적 삶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그는 예언에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그의 목적, 권위, 방법, 예언적 자질의 전승, 그리고 실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의하며 정당화한다. 블레이크가 기독교적 이원론을 삶에 대한 인습적 방식으로 비난한 것이 비록 신랄한 것이긴 하지만, 그의 작품의 목적은 이원론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습적인 정신적 습성의 자기 파괴적 성격을 제시하고, 대립물의 역동성이 지니는 창조력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풍자와 같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개혁적 정신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이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은 일련의 기존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의 또 하나의 목적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혜를 넘어서서 자신의 잠재력을 행사하여 세계와 매번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작품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예언자적 시인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예언적 자질에 대한 블레이크의 비판적 탐구이자 기독교적 이원론을 전복시키고자 하며, 풍자적 기법을 통하여 대립의 원리를 밝히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예언적 목적이 풍자를 압도하는 예언서이다.

<REFERENCES>

- Blake, William. *The Complete Poetry and Prose of William Blake*. ed. David V. Erdman.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
- Bloom, Harold. *The Anxiety of Influence: A Theory of Poet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73.
- . *Blake's Apocalypse: A Study in Poetic Argument*.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3.
- . *The Ringers in the Tower: Studies in Romantic Traditi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1.
- . ed. *Modern Critical Views: William Blak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 . ed.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William Blake's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 . ed.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William Blake's The Marriage Heaven and Hell*.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 Damon, S. Foster. *A Blake Dictionary: The Ideas and Symbols of William Blake*. Boulder: Shambhala Publications, Inc., 1979.
- . *William Blake: His Philosophy and Symbols*. Boston: Houghton, 1924.
- Damrosch, Leopold, Jr. *Symbol and Truth in Blake's Myth*.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0.
- Erdman, David V. *Blake: Prophet against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7.
- . "Blake: The Historical Approach." *Modern Critical Views: William Blak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 Essick, Robert N. *William Blake and the Language of Adam*. Oxford: Clarendon Press, 1989.
- . "Blake Today and Tomorrow". *Studies in Romanticism* 21(Fall 1982): 395~403.
- Fisher, Peter. *The Valley of Vision: Blake as Prophet and Revolutionary*.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60.
- Frye, Northrop. *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9.
- . ed. *Blak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6.
- . "The Keys to the Gates". *Modern Critical Views: William Blak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 Gilchrist, Alexander. *Life of William Blake*. 2 vols. New York: Phaeton Press, 1969.
- Heschel, Abraham J. *The Prophe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9.
- F. R. Leaves. *Revalua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8.
- McGann, Jerome J.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Chicago: The Univ. of

- Chicago Press, 1983.
- Mellor, Anne K. *Blake's Human Form Divine*.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4.
- Miller, Dan. "Contrary Revelation: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Studies in Romanticism* 24 (1985): 491~509.
- Mitchell, W. J. T. *Blake's Composite Art: A Study of the Illuminated Poet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8.
- Nurmi, Martin K. *Blake's Marriage of Heaven and Hell: A Critical Study*. Kent: The Kent State Univ. Press, 1957.
- Paley, Morton D. *Energy and Imagination: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Blake's Thought*.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0.
- Punter, David. *Blake, Hegel and Dialectic*. Amsterdam: Rodopi, 1982.
- Tannenbaum, Leslie. *Biblical Tradition in Blake's Early Prophecies: The Great Code of Ar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2.
- Wilson, Mona. *The Life of William Blake*. London: Rupert Hart-Davis, 1948.
- Witke, Joanne. *William Blake's Epic: Imagination Unbound*. London: Croom Hell, 1986.
- Wittreich, Joseph Anthony, Jr. *Angels of Apocalypse: Blake's Idea of Milt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5.

<ABSTRACT>

Prophecy or Satire: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Hur, Yoon-Deok

In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Blake presents not only the principles of contraries, which is the peculiar way of seeing the world, but also a critical inquiry of the prophetic career. In order to bring forth the mental apocalypse in the reader, *The Marriage* attempts to get rid of conventional approaches to life through the principle of contraries, the disjointed structure, and the juxtaposition of disparate elements, and biting satire. The prophet-poet examines, defines, and justifies his purpose, his source of inspiration, his prophetic tradition. He also makes experiments with diverse forms of presentation to find a proper vehicle for his prophecy.

Conclusively speaking, Blake renders his prophetic perception of the world through his own rhetorical and experimental poetic devices such as syntactical and semantic ambiguities, and organic and transfiguring uses of religious, political, and literary traditions. And he also revises the visions and rhetoric of his predecessors and delivers the reader's mentality from the confines of established conception and conventional modes of thinking and awakens man's dormant capacity for perception of the infinite in the world. Finally, Blake intends to build 'New Jerusalem' or Eternity, a democratic world, in which the variety and individuality of all individuals coexist in harmony and all of beings have a organic and active relationship to each other.